



북한이탈주민, 우리의 이웃이 되다.

김 정 환

부산YWCA 사무총장/부산하나센터장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탈북민, 북향민...

다양하게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의 이름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정식 법률적 명칭이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 32,000여명 정도가 입국해 있으며 전체의 65%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등 수도권에 살고 있다. 부산은 전국의 3% 정도 되며 935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부산 16개 구군 곳곳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거주자의 2/3 정도가 기장군과 사하구, 강서구, 해운대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2019년까지 월 3-5명 정도가 부산지역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해 왔지만 2020년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입국하는 주민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폐쇄 정책 강화와 함께 중국 내에서의 이동의 어려움 등이 원인이라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여러 관계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이것이 종료된 후에 하나 원으로 이관되어 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 진로 지도 등 정착 준비를 위한 사회적응교육을 3개월간 받게 된다. 그 후 각자가 거주하게 되는 지역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편입이 되어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지역살이를 위한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교육을 하나센터가 진행한다. 부산에는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가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부산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센터는 입국 후 초기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교육, 의료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지원과 경제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여 취업을 하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까지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지자체의 거주지 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복지서비스와 취업담당관의 취업지원, 지역경찰서의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한 안전과 신변 보호 등의 서비스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건강히 잘 살아가도록 도울 뿐 아니라 먼저 온 통일 세대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

도가 비교적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라고 한다. 2019년 부산하나센터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주민의 60% 이상이 중간 정도 이상의 차별을 받는 것으로 응답하여 충격을 주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으리라 기대를 해보지만 큰 차이는 없는 듯하다. 직장과 지역사회, 자녀의 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차별과 무시의 경험은 주민의 정착에 큰 어려움을 준다. 주민들은 그 주된 이유가 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의 다름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며,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해 말투를 변화시키는 등의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더 깊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자녀 양육과 빈곤의 이중고에 시달리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이 유아기 자녀를 동반하거나 출산을 하면 주변에 돌보아 줄 지인이 없어 일은 고사하고 자신의 몸조차 추스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해 좀 더 세심한 배려와 돌봄 확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연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시민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

본다. 북한이탈주민을 시민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며 ‘통일의 자원’이 되는 귀한 존재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들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다양한 교류와 소통이 요구된다.

부산은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많지 않고 북한과의 거리도 멀다 보니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관심이나 통일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부족하다. 그러나 통일은 한반도로부터 유라시아를 향하는 시작점으로서의 부산을 더욱 기대케 하는 측면이 있다. 만약 북한이탈주민을 부산시민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안아주고, 우리의 이웃임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한다면, 부산은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 통일 이후가 더욱 기대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야 부산이 단순히 잘 사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살 만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에 더해 이주자, 다문화,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본세상**